목포시,지자체관광앱최초챗GPT기반AI챗봇도입

스마트 관광 플랫폼 '비짓목포·스마트 도슨트'업그레이드 국내·외 관광객 구분 맞춤형 관광정보 신속하게 제공 가능

목포시가 지자체 관광 앱(APP) 최초로 Open AI 챗GPT 및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기 반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챗GPT는 Open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AI) 챗봇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챗GPT의 한계를 보완해 국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관광 정보를 즉각적으로 서비스하게되다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인 스 마트 관광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목포시의 대 표 관광 어플 '비짓목포(Visit Mokpo)', '스마트 도슨트'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짓 목포(Visit Mokpo)'앱은 목포의 다양한 관광지와 맛집·숙박·축제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도슨트'앱은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다국어(한, 영, 일, 중)로 해설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광 편의성 강화를 위한 AI챗봇, 콘텐츠 차별화, 예약결제 고도화 및 서비스 강화 등 이번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개발되는 새로운 AI챗봇은 기존 앱 내 에서 관련 연결 페이지만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개선해 구어체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은 목포의 맛집, 관광명소, 여행지 추천 등 실시간 대화로 정보를 얻을 수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인공지 능 챗봇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관광 기술을 융합해 체감도 높은 선진관광 인프라 를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에 걸맞은 관광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AI챗봇이 적용된 비짓목포와 스마트 도 슨트 앱을 올해 10월 정식 서비스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며, 관광객들이 사용하 기 편한 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편안 앱 개발을 위해 최신을 나알 계획이다.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인 이



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가족센터 "한국어, 영암군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결혼이민자 60여명 대상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 개강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는 3월 6 일과 7일, 결혼이민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의 개강식 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식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 삶 카메라 자율과 범죄 사이'라는 주제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병행하며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은 실용한국어 교육으로, 수업은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각각 운영되며 3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 주간(대면, 화·목) 및 야간 (온라인, 월·목)에 진행된다.

군은 한국어 수업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신·출산, 자 녀양육, 직장생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 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대면뿐만 아니라 비 대면, 야간반, 주말반 등 교육시간과 형태를 다양하게 개설하였다고 밝히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외 국인은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yeongam. familynet.or.kr) 또는 전화(☎061-463-2929)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시행…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기대

무안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 판 아간 영치 활동을 한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낮 시 간대에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부착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 단속만으로는 체 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 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 로 외에 아파트와 원룸 주차장 등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3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체납 차량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회, 전국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 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 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세무회계과(☎061-450-5379)로 문의 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벼 안정생산 교육' 농업인 80명 대상…병해충 방제법·드론방제 등 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병해충 피해 및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벼 안정생산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잦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피해에 대비하기 위 해 마련됐다.

㈜세울컴퍼니 전문위원인 이인 박사가 강사로 나서 ▲벼 병해충 방제방법 ▲드론방제 시점검사항 ▲유해가스, 괴불, 이끼 제거 요령 등



을 교육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명품 김 생산으로 김산업 한단계 업그레이드 전국 최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 최종 선정

지속가능한 김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김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적인 명품 김 생산으로 김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안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최 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총 50억원의 예산 이 지원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김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진흥구 역으로 지정하여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안군은 공모사업에 앞서 1월 9일 신안군 청에서 북부권김생산자협의회, ㈜신안천사 김과 미국 수출김 전용단지 지정을 위한 업 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북부권 김 양식장 1,118ha를 공모사업 지구로 신청했다.

이 일대를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위생 및 안 전관리를 강화하여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을 제고하고,

친환경 기자재 보급, 친환경 유기인증 취득 지원, 김 가공공장 품질 개선 등을 통하여 체 계적인 관리로 세계적인 명품 신안 김을 생산 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신안군이 김 수출 증대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김 산업발전을 위하 여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